

건강 칼럼

무릎 관절 내 골절, 초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그만큼 스포츠 외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릎 골절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관절 내에서 발생한 골절은 단순한 뼈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골절 치료가 뼈의 유합에 초점을 둔다면, 무릎 관절 내 골절은 관절의 구조와 기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손상이다. 무릎은 체중 부하가 크게 작용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초기 치료 방향에 따라 이후 관절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무릎 관절 내 골절의 초기 치료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고 종 인 대전선병원 관절센터 전문의

증가시키고, 이는 연골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지속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나타나고, 나아가 퇴행성 관절 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무릎 관절 내 골절, 특히 경골 고령부 골절 환자의 경우 약 50%에서 10년 이내 방사선상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이는 관절 내 골절 자체가 장기적인 관절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무릎 관절 내 골절 치료에서는 단순히 골절 부위를 고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검사가 활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골절 양상에 맞는 치료 방법이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관절면을 정밀하게 맞추고 고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치료 과정은 향후 관절 기능 유지와 통증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무릎 관절 내 골절은 교통사고나 낙상과 같은 외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 역시 중요하다. 손상 직후의 정밀한 진단과 다학제 협진 체계는 치료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릎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관절로, 한 번의 손상이 장기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관절 내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 골절로 판단하기보다 관절 구조까지 고려한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초기 치료에서의 정확한 접근이 이후의 회복 과정과 관절의 장기적인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자제언

농번기 화물차 안전수칙 준수가 생명 지킨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차량 운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작물 운반, 작업자 이동 등으로 화물차량 이용이 잦아지는 시기이지만,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또한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화물차량 승차인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화물차는 구조상 사람을 태우는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거나 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위험한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법규위반을 넘어, 사고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직

결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승차인원 초과 시 범칙금이 부과 된다. 특히, 농번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교령의 주민들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우려가 있어 짧은 거리라는 이유로 안전 수칙을 무시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농번기 기간동안 화물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승차인원 위반, 적재함 탑승, 적재물 관리상태 등에 항상 확인하고, 화물차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서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상우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 · 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백악관 만찬 총격 용의자 거주지 주변에 모인 취재진



26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에서 있는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WHCD)' 총격 사건 용의자 톨머스 앨런의 거주지 인근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수사 당국은 전날 현장에서 검거된 앨런이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까지 열차로 이동한 경로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

사설

SK하이닉스 생산직 채용

반도체 초호황기로 역대급 성과급이 예상되는 SK하이닉스가 생산직 채용에 나서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채용 홈페이지에 생산직 채용 공고를 내고 4월 22일까지 접수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반도체 제조 장비 유지 보수와 라인 운영 등의 직무를 모집하는데, 모집 대상은 7~8월 입사가 가능한 고등학교 졸업자나 전문대 졸업자다. 학력을 이와 같이 제한하자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는 '학위 속이는 방법'을 문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러한 학위를 기재하지 않고 SK하이닉스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근접한 지역에서는 셔틀버스 통근권 아파트를 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

났다. 용인 수지, 화성 동탄 등이 주요 지역으로 꼽힌다. 주요 반도체 기업 서류 노선이 지나는 용인 수지(6.93%), 성남 분당(4.33%), 하남(4.32%), 수원 영통(3.13%), 화성 동탄(2.05%) 등의 집값 누적 상승률은 수도권 평균(1.54%)을 웃돌았다. SK하이닉스 채용이 화제가 된 배경에는 역대급 성과급이 거론된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0조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개인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한 바 있다. 따라서 업계의 실적 컨센서스가 현실화된다면 내년에 지급될 SK하이닉스 직원 1인당 성과급은 단순 계산으로 7억원에 달한다.

중전 못하는 트럼프

이란은 흐르무즈해협 통제라는 새로운 지렛대를 발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늘 겁을 먹고 물러산다)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란을 폭격하겠다고 오전 내내 공언했던 그가 불과 몇 시간 만에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공격 위험도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시간부 휴전 카드도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이란에 주도권을 빼앗긴 채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일부 외신들과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관세든 이란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위기는 결국 타코로 귀결된다"며 조롱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 의사

를 묻는 질문에 "그리고 싶지 않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폭격을 예상한다. 군은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 종료 시점을 못박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이어 "해상 봉쇄를 계속하는 것은 폭격과 다를 바 없어"며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더욱이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분명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용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입장에선 지지를 하락과 오는 11월 중간선거 압박을 감인했을 때 전면전을 재개하는 것도, 무한정 기다리는 것도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주도권이 기울었다는 신호는 전쟁 국면 자체에서도 확인된다. 휴전 조건이던 흐르무즈해협 전면 재개방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